

APLAC 총회

1. 회의 및 국제기구 개요

회의 개요

회의명 : APLAC 총회
(APALC General Assembly)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 12. 01(토)~07(금)
- * 우리나라 대표단 참석 일자 : 07. 12. 03(월)~ 07(금)
- 장 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참가자 : 26개국 32개기관 117명



양희찬

적합성평가제도팀 공업연구소
02-509-7226
hevyang@nicie.go.kr

국제기구 개요

- 준회원 기구 : 3개국 4개기구
- MRA 체결기구 : 17개국 26개 기구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APLAC: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주요 임원 : 의장 - Mr. Terence Chan(홍콩, HKAS)
사무국장 - Dr. Helen Liddy(호주, NATA)
- ※ MRA 이사회
- 주요 임원 : 의장 - Mr. Gary Ashcroft (뉴질랜드, IANZ)
사무국장 - Dr. Helen Liddy(호주, NATA)
- 회원국 현황
- APLAC-MRA 정회원 : 24개국 36개 기구

참가 대표단

성명	소속	직위	참석회의
최금후	적합성평가제도팀	팀장	MRA 이사회 APLAC 총회
이현자	적합성평가제도팀	공업연구원	MRA 이사회 APLAC 총회 숙련도시험위원회 회의
양희찬	적합성평가제도팀	공업연구소	MRA 이사회 APLAC 총회 숙련도시험위원회 회의
하창민	적합성평가제도팀	전문위원	MRA 이사회 APLAC 총회 교육위원회

2. MRA 위원회 및 총회

회의개요

회의명 : APLAC MRA위원회 및 총회 회의
일시 : 2007.12.5~7(수~금, 08:30~17:00)
참석자 : 최금호(적합성평가제도팀장), 이현자(공업연구관), 양희찬(공업연구사), 하창인(전문위원)

주요 의제

KOLAS 직원이동 및 교육이수현황 보고

- APLAC MRA 위원회에서 KOLAS측의 분기별 직원이동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향후 '08년 KOLAS의 APLAC-MRA 재평가 시 점검하기로 결정
- * 우리측에서 KOLAS 직원이동을 100%정도 유지할 것임을 밝혔으나 미국 등 일부 우원들이 명확하게 보장을 요구

L-A-B(미국) 등 1개 기구의 신규 MRA 체결 및 NATA(호주) 등 7개 기구의 재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 주요 지적 사항

- 갱신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지연
 - * NATA(호주)는 약 4.49%가 3개월 이상의 평가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답변할 것을 요구
- 평가 등 주요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 * SCC(캐나다)는 평가 등의 주요업무를 각 분야 별로 위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인정 결정등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직원 고용현황에 대

해 보고 할 것을 요구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 * 기술전문가도 ISO/IEC 17025 교육을 받는 등 인정기구에서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나 LANZ(뉴질랜드)는 근거 자료가 없이 평가 활동을 수행
 - * LAJapan은 평가사의 갱신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평가사의 자료에 대한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음(Concern 사항)
- 국제숙련도시험의 불만족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 확인

ISO15189(의학분야 인정제도)가 '07년 제정됨에 따라, 각 인정기구들이 APLAC-MRA 가입을 경쟁적으로 추진

- * 세계적인 CAP(미국)의 임상검사실 인정제도와의 동등성 자격 부여를 위하여 APLAC 회원국들의 협력강화를 결의

신규분야에 대한 APLAC-MRA 및 인정시스템 도입 추진

- 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 대하여 APLAC-MRA를 신규 추진 예정
- NATA(호주)는 3개의 연구기관에 대해 세계 최초로 ISO/IEC 17025를 인정

ILAC과 IAF통합 추진 정책에 대한 APLAC의 집행부와 회원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08년 1월까지 회원국들이 의견 수렴 예정

3. 기술 위원회

회의개요

회의명 : APLAC 기술위원회 회의

일 시 : 2007.12.4(화), 08:30~17:00

참석자 : 이현자(적합성평가제도팀 공업연구관), 양희찬(공업연구사), 하창인(전문위원)

주요 의제

기술위원회는 표준물질, 교정, 검사, 의료분야, 격지 인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Sub-Committee를 구성. 각 분야의 평가기준 강화를 위한 지침서를 제정 예정

- 표준물질생산기관(RMP) 관련 W. W. Wang(HKAS, 홍콩)이 convener가 되어 RMP 평가 지침 개발 진행 중
- 격지(remote site)에 대한 평가 방법은 Collen Cotten(CAEAL, 캐나다)이 convener가 되어 평가 지침 개발 예정
- * 캐나다 등 높은 나라는 격지 평가에 대해서 중요 시험기관만 평가하는 샘플링 방법을 취하고 있음

ILAC 기술위원회는 CMC, BMC는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향후 BMC를 사용하는 인정기구는 CMC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될 예정임

- * ILAC에서는 최대측정능력에 대해 CMC로 정의하고 APLAC에서는 BMC로 정의하여 사용

원격 교정(remote calibrat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교정인정범위를 확대 가능성 검토

- * 원격 교정(remote calibration)은 교정기관에 속해있는 교정원이 직접 교정대상 장비가 있는 시험기관에 가지 않고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교정기관에서 분석 후 교정하는 작업

측정소급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CRM 승인지침서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69%의 응답자가 ILAC G-9와 ILAC P-10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

- ILAC P-10은 최근 ILAC AIC WG2가 ILAC ARC와 CIPM, NCSL과 같은 이해관계기관으로부터 동 지침서의 개정요청을 받아 개정작업 진행 중

4. 숙련도 위원회

회의개요

회의명 : APLAC 숙련도위원회 회의

일 시 : 2007.12.3(월), 09:30~17:00

참석자 : 이현자(적합성평가제도팀 공업연구관), 양희찬(공업연구사)

주요 의제

숙련도시험 참여주기에 대한 지침서 개정 검토

- ILAC P9은 모든 분야에 대한 동일한 숙련도시험 참가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분야별로 다른 주기로 참가하는 방향으로 개정 진행 중
- APLAC MRA 협정체결기구는 숙련도시험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운영에 있어 타기구를 벤치마킹해서 각 인정기구에 맞는 정책을 설정
- * ILAC P9(국내 국제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요구조건)

CASCO WG 28에서 ISO/IEC 17043제정
관련 보고(2009년 완료 예정)

- 주요 논의의 중의 내용
 - 숙련도시험에 대한 검사기관 참여
 - Blind Test, Sampling Test 방법 논의
 - 감각 평가(색깔, 맛 등)등에 대한 숙련도시험 논의
 - 측정불확도는 숙련도시험의 평가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ISO/IEC 17043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5. 교육 위원회

회의개요

회의명 : APLAC 교육위원회 회의
일 시 : 2007.12.3(월, 09:30~17:00)
참석자 : 하창인(적합성평가제도팀 전문위원)

주요 의제

RMP 인정 관련 평가사 트레이너 대상 교육
과정 신설

- 제안 배경
- APLAC의 RMP 인정범위 확대 예정에 따라, 대부분의 인정기관이 동 분야 MKR 체결을 위한 작업에 착수
- 현재 RMP MKR 인정범위 체계 확립에 필요한 기술평가사에 대한 트레이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 분야 워크샵 신설·개최가 대두

* RMP MKR 체결과정기구 : 4개(08. 중반기 공식범위로 확대 예정)

- 중점 논의사항
- ISO/IEC Guide 34+ISO/IEC 17025를 적용한

RMP 평가 교육

- 개최시기
- 내년도 후반기에 RMP 분야 평가사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이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

규제기관과의 업무를 위한 인정기구 대상 세미나 개최

- 제안 배경
- 인정기구와 규제기관과의 업무개선과 규제기관의 인정수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안됨 (제안기구 : IANZ(뉴질랜드))
- 주제
- 인정기구와 규제기관과의 업무개선방법
- 개최시기
- 내년도 총회(싱가포르 기간 중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

6. 제3차 KOLAS-IAJapan 정례회의

양측은 숙련도시험 협력을 위해 2008년 하나의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

동등성 평가 및 신규 분야 확대(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에 대한 양국의 문서 및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

* IAJapan 은 2007년 APLAC 동등성 평가를 완료하고 금번 MKR 이사회에서 MKR 자격유지가 결정됨

7. 발전 방안 및 향후 계획

발전 방안

2008년 9월 예정인 KOLAS의 동등성 평가

대응

- 직원 이동에 대한 현황 및 KOLAS 대표자의 확고한 신념을 확인 할 예정이므로 동등성 평가까지는 가능한 직원의 이동을 최소화
-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다른 팀으로 이동이 되더라도 minor committee 로 KOLAS 직원의 자격 유지
- 국제 문서에 따른 KOLAS 문서 재검토 및 4년간 KOLAS 업무 이행 현황 정리
- 2007년 신규평가 및 재평가 받은 기관의 부적합 사항을 분석
- 검사, 표준물질 분야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적합성평가제도팀), 표준물질(계량측정팀) 분야 MRA 신규가입을 위한 관련 문서 및 인정 실적을 정리하여 동등성 평가 준비

국제 문서 제정 등 국제 활동에 대한 참여

- KOLAS는 우선 4개의 APLAC 위원회에 대해 KOLAS 사무국 직원을 등록하여 국제 활동에 아국의 의견을 반영
 - 최근 IAJapan(일본), HKAS(홍콩) 등은 각 APLAC 위원회 및 작업반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국제문서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
- 각 분야별 작업반에서 수행중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침서 및 정책 개발 시 아국의 전문가가 참

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APLAC은 회원만 회의에 참가가능 하므로 산하 시험기관이 준회원으로 APLAC에 가입하여 APLAC의 작업반에 회원으로 참가토록 함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은 준회원으로 가입 완료

ILAC과 IAF통합 추진 정책에 대해 KOLAS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정밀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

- ILAC 관련업무는 적합성평가제도팀(KOLAS), IAF 관련 업무는 계량측정팀(KAS)에서 담당

KOLAS-IAJapan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협력 사항을 한일정례회담 의제로 채택하여 향후 양국간 상호 협력 활동 강화

향후 계획

적합성평가제도팀은 APLAC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KOLAS 업무에 반영하여 국내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분야에 대한 국제화를 도모하고 2008년 동등성평가를 원활하게 수행

| 기술표준 2008. 1

